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안전교육이 응급처치 대처능력 및 체험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관계 모형

최미영<sup>1\*</sup>, 문태영<sup>2</sup>

<sup>1</sup>경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sup>2</sup>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 Model for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Safety Education by a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Center to First-Aid Coping Skills and Experience Satisfaction

Mi-Young Choi<sup>1\*</sup>, Tae-Young Moon<sup>2</sup>

<sup>1</sup>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yungi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센터가 제공하는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대처능력, 체험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을 규명하기 위하여 K도 S시에 위치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를 이용하는 남녀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를 받았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PC+ 20.0 및 Amos 16.0에 의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가 제공하는 안전교육이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425, p<.001$ ). 둘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안전교육은 체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751, p<.001$ ). 셋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응급처치 대처능력은 체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6.781, p<.001$ ).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을 위한 측정모형은 적합지수 .90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GFI=.978, NFI=.993, CFI=.984$ ).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양 레저스포츠를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a model for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safety education provided by a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center to first-aid coping skills and experience satisfaction. 307 male and female customers who used a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center located in the city of S-si, K-do Province, were investigated from June 15 to August 30, 2017.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SPSS/PC+ 20.0 and Amos 16.0.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afety education offered by the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center was found to have affected first-aid coping skills( $t=3.425, p<.001$ ). Second, the safety education by the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center was found to have exerted an influence on experience satisfaction( $t=3.751, p<.001$ ). Third, the first-aid coping skills of the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center was found to have had an impact on experience satisfaction( $t=6.781, p<.001$ ). The measurement model for the hypothesis test in this study was found to be appropriate( $GFI=.978, NFI=.993, CFI=.984$ ).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more extended safety education is expected to be effective, as customers who use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centers will be able to enjoy marine leisure sports more safely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when they are compulsorily required to receive safety education.

**Keywords** : Experience Satisfaction, First-Aid Coping Skills,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Center, Model for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Safety Education., Safety Intention, Safety Behavior, Subjective Norm

2017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정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 620170143)

\*Corresponding Author : Mi-Yuon Chol(Kyungil Univ.)

Tel: +82-33-540-3341 email: emtmy@naver.com

Received November 23, 2018

Revised December 20, 2018

Accepted February 1,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와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로 수준 높은 양질의 여가활동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벗어나 해양을 체험해보고—적극적인 모험스포츠를 하려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레저스포츠는 더욱 주목 받는 스포츠로 자기 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은 다양한 심리적인 욕구만족에 긍정적 기여를 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1].

특히 삼면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3,170개의 섬과 11,542km의 해안선, 2,39km<sup>2</sup>의 갯벌은 물론 2,240개의 어항과 포구, 360개의 해수욕장이 있으며, 수많은 해안경관지와 약 70여개의 해양축제 및 스포츠이벤트 등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2].

이 같은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증가 및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소비자들의 여가활동으로 스포츠 참여에 대한 인식전환, 여가활동의 고급화 등 해양을 레저스포츠의 장소로 적극 이용하는데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3].

해양레저스포츠는 공간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로 해양관광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4].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민의 여가시간의 증대와 경제적인 여건 개선으로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해양관광 및 해양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체험형태의 참여스포츠로 확대되었다[5]. 이처럼 국민들에게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주어 다양한 해양관광 수요를 높이고,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 및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6].

그러나 해양스포츠의 활성화로 인해 참여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발생 및 부상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유형 및 부상의 정도는 육상에서의 스포츠 안전사고에 비해 더 심각한 실정이다[7].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해경에 신고된 해수면 수상레저 사고 중 피해 사고만 해도 25건이나 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2명, 중상자 8명을 포함해 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사고사례를 보면, 2016년 7월 충북 괴산에서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 초과로 수상오토바이가 전

복돼 1명 사망, 충남 태안에서 5명이 수상오토바이에 연결된 워터슬래드 탑승 중 1명이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매해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면서 한편으로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활동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8].

해양스포츠 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안전(安穩)’이다. 안전한 레저스포츠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지식, 즉 안전 교육을 통한 안전인식의 확보이다[9]. 연구에서도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안전교육을 꼽았다.

안전교육이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육성시키는 것으로 개인과 집단의 안전과 건강을 최고로 발달시키는 교육이며, 근본적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10]. 레저스포츠는 여가활동으로 이에 대한 안전교육은 여가활동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11].

이러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여가생활의 질 향상 및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 심리적 안정감 형성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높임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레저스포츠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방안[12-13], 해양레저 체험자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16-17], 안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안전의식[16], 수상안전교육[17]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대부분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지도자나 해양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양레저스포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효과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안전교육이 참가자들의 응급처치 대처능력이나 체험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안전교육이 응급처치 대처능력, 체험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

명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용객들에게 시행한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대처능력, 체험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모형은 Fig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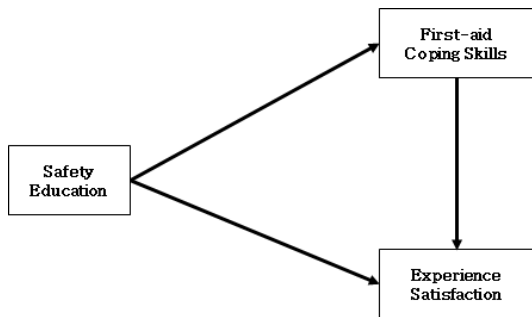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가설1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이용객들의 안전교육은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이용객들의 안전교육은 체험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이용객들의 응급처치 대처능력은 체험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K도에 소재하는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총 350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그중 확실적 응답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43명을 제외한 307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작성은 먼저 연구의 목적과 설문작성 시의 유의점을 인식시키고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이용객들의 안전교육, 응급처치 대처능력 및 체험만족도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게 답할 수 있도록

목적 시간을 할애하여 자기평가기입식(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실시하였다.

###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는 설문지이다.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이미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사용했던 도구 가운데 본 연구의 변인에 맞게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안전교육, 응급처치 대처능력, 체험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Variable	Number
Safety education	6
First-aid coping skills	32
Experience satisfaction	15
General Characteristics	6
Total	57

### 2.3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의 도구를 연구 목적에 맞추어 연구자가 설문지의 구성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받기 위하여 체육관련 전문가 3명, 체육교수 2명의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이용객들의 안전교육, 응급처치 대처능력 및 체험만족도 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요인추출모델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직각회전방식 중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요인적재치가 0.5 이상인 문항들을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 2.3.1 안전 교육

본 연구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측정도구는 김아연이 사용한 재난안전관리분야 교육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문항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18].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안전교육에 평가적 차원에서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만족도, 전문성,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first-aid coping skills

Division		Q1	Q 2	Q3	Q4	Q5	Q6	Q7	Q8	Reliability
Q1	3	.854								.916
	2	.824								
	5	.804								
	6	.770								
	4	.765								
	1	.706								
Q2	1		.719							.662
	2		.651							
	3		.621							
Q3	2			.619						.866
	3			.565						
	1			.503						
Q4	1				.841					.951
	2				.841					
Q5	2					.768				.780
	1					.707				
	3					.701				
	4					.581				
Q6	3						.688			.734
	5						.649			
	4						.649			
	2						.624			
	6						.620			
	1						.591			
Q7	3							.800		.717
	2							.726		
	4							.661		
Q8	2								.733	.670
	1								.710	
Unique value		4.661	3.102	3.025	3.017	2.767	2.068	1.329	1.135	
Dispersion(%)		14.566	9.695	9.453	9.429	8.646	6.463	4.153	3.561	.920
Accumulated dispersion(%)		14.566	24.261	33.714	43.143	51.789	58.252	62.405	65.966	

Q1 : Evacuation from dangerous places                      Q2 : Treatment for tissue damages  
 Q3 : Offering help to others in case of emergency        Q4 : Recovery and escape  
 Q5 : Treatment for injuries by heat and cold              Q6 : Asking for help  
 Q7 : Treatment for ordinary injuries                        Q8 : Proper responses to emergency situations

현장 활용성, 실습기자재 활용, 현장감, 직접 참여도로 총 6개 단일차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교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50$ 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3.2 응급처치 대처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대한 측정 도구는 박홍철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19].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이용객들의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대한 평가적 차원에서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도움요청, 일반적인 부상에 대한 처치, 응급상황에 적절한 응답, 위험장소에서 대

피, 조직손상에 대한 처치, 열·추위·이물질에 의한 손상에 대한 처치, 비상 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제공, 구조 및 탈출 8개 하위변인으로 총 32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대한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0$ 으로 나타났으며,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 2.3.3 체험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험 만족도의 측정도구는 정영주, 광이섭이 사용한 도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19]. 설문지의 구성은 시설/환경,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의 3가지 하위변인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는 5점 Likert 척

도를 사용하였고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80$ 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experience satisfaction

Division	Q1	Q2	Q3	Reliability
Q1	2	.815		.789
	3	.756		
	4	.751		
	1	.675		
Q2	5	.748		.885
	2	.697		
	4	.696		
	1	.617		
Q3	3	.570		.798
	1		.785	
	2		.672	
	3		.669	
4		.576		
Unique value	2.401	1.668	1.580	
Dispersion(%)	16.007	11.120	10.536	.880
Accumulated dispersion(%)	16.007	27.127	37.664	

Q1 : Facility/environmental satisfaction

Q2 : Service satisfaction

Q3 : Overall satisfaction

## 2.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5에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Cronbach's  $\alpha$  분석을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교육, 응급처치 대처능력, 만족도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안전교육, 응급처치 대처능력, 체험만족도 간의 인과관계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earc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 (n)	Percent (%)	
Gender	Male	158	51.1
	Female	149	48.9
Age	20 or less	106	34.5
	30's	65	21.2
	40's	119	38.8
	Over 51	17	5.5
Marital	married	179	58.3
	single	128	41.7
Education	High School	43	14.0
	Major	145	47.2
	University graduation	97	31.6
	Graduate school graduation	22	7.2
Average income	200 or less	144	46.9
	200-300	66	21.5
	300-400	45	14.7
	400-500	28	9.1
Over 500	24	7.8	
Participating events	Yacht	47	15.3
	Windsurfing	64	20.8
	Skin Scuba	107	34.9
	Sea experience	89	29.0

Table 4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참여자들의 307명 중 성별은 남성 158명(51.5%), 여성 149명(48.9%)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106명(34.5%), 30대가 65명(21.28%), 40대가 119명(38.8%), 51세 이상 17명(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있어서 기혼이 179명(58.3%), 미혼이 128명(41.7%)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43명(14.06%), 대재가 145명(47.2%), 대학졸업 97명(31.6%), 대학원 졸업 22명(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에 있어서 200만원 미만 144명(46.9),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 66명(21.5%),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 45명(14.7%), 4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 28명(9.1%), 500만원 이상 24명(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종목은 요트 47명(15.3%), 윈드서핑 64명(20.8%), 스킨스쿠버 107명(34.9%), 기타(바다체험)에 참여자 89명(29.0%)인 것으로 나타났다.

### 3.2 척도의 기술통계

본 연구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안전교육이 응급처치 대처능력 및 체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기술통계분석결과 Table 5와 같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scale

variable	M	SD
Safety education	16.81	2.14
First-aid coping skills	7.48	1.45
Experience satisfaction	7.35	.80

Table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안전교육 16.81, 응급처치 대처능력 27.48, 체험만족도 7.35로 나타났다.

### 3.3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안전교육, 응급처치 대처능력, 체험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교육은 응급처치 대처능력( $r=.19, p<.01$ ), 체험만족도( $r=.21, p<.01$ )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응급처치 대처능력은 체험만족도( $r=.36, p<.01$ )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Table 6. The correlations of the safety education, first-aid coping skills, experience satisfaction

	Safety education	First-aid coping skills	Experience satisfaction
Safety education	1		
First-aid coping skills	.19**	1	
Experience satisfaction	.21**	.36**	1

\*\* $p<.01$

### 3.4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 관한 가설의 검정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이론모형(Structural Model)을 통해서 모형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 모형의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은 인과분석을 위해서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개선적으로 결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AMOS(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Table 7. Model fitting

Fitness	$\chi^2$	DF	GFI	NFI	CFI	RMR
Research model	234.51***	24	978	993	984	.043

\*\*\* $p<.001$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로는 GFI, NFI, CFI 지수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GFI, NFI,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R는 .05미만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합지수인  $GFI=.978, NFI=.993, CFI=.984$ 로 .90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소간 평균차이  $RMR=.043$ 로 나타나 전체모형이 비교적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과 모형은 실증자료로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4. 가설검증 결과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안전교육, 응급처치 대처능력, 체험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8, Fig 2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8.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Route	B	SE	t-value	Result
Safety education → First-aid coping skills	.281	.082	3.425***	selection
Safety education → Experience satisfaction	.558	.149	3.751***	selection
First-aid coping skills → Experience satisfaction	.660	.097	6.781***	selection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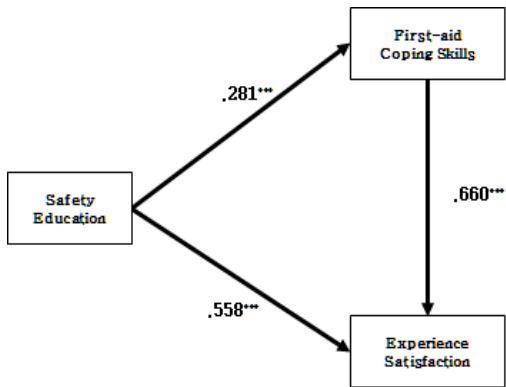


Fig. 2. Results of a model in structural equation

첫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안전교육이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beta=.281$ ,  $t$ 값은 3.425로 안전교육은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가설은 채택 되었다.

둘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안전교육이 체험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beta=.558$ ,  $t$ 값은 3.751로 안전교육은 체험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두 번째 가설은 채택 되었다.

셋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응급처치 대처능력은 체험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beta=.660$ ,  $t$ 값은 6.781로 응급처치 대처능력은 체험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 5. 논의

본 연구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안전교육이 응급처치 대처능력 및 체험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관계 모형을 규명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를 찾는 이용객들이 안전교육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안전교육은 응급처

치 대처능력에 정적효과가 있었다.

응급처치 대처능력은 안전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안전한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안전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안전행동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의식의 형성은 필수적이다[21].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양레저스포츠는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곳이다. 안전사고로 인한 위험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 행동, 태도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22]. 따라서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의 형성은 안전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안전의식과 응급상황 대처능력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23].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지수와 응급상황대처에 대한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대학생의 안전의식과 응급상황대처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안전교육이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24]. 즉,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자기효능감이라 함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하여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판단 및 신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교육이다.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법 등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응급처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의식의 확립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식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운영과 동시에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은 물론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안전교육은 체험만족도에 정적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안전의식이 결과적으로 체험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김영주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안전의식으로

인하여 안전한 문화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개인의 안전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25]. 이처럼 안전교육은 개인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전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교육은 안전의식의 확립을 넘어 안전 문화 형성,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만족도 증가에 따른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 일환으로 서비스의 제공여부와 서비스품질에 따라 이용자의 만족도가 달라진다. 정기수는 교육서비스의 품질이 학습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6]. 즉,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에 대한 만족도 상승의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안전에 대한 지식은 해양레저스포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지식의 습득은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할 때에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매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없다. 이용객들은 이러한 이유로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안전교육 제공은 매우 유익한 시간으로 여기게 될 것이며, 체험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는 체험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교육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응급처치 대처능력은 체험만족도에 정적효과가 있었다.

이는 응급처치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응급상황에 대한 지식 및 능력이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송미정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자신감과 만족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27]. 따라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향상은 개인의 자신감과 체험만족도의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은 자신의 경험이나 일상생

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큰 의미를 둔다. 응급상황에 노출되었던 경험이나 기억이 있다면 안전과 관련된 지식이나 대처능력에 대해 관심 증가, 대처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요즘의 시대적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을 통해 이러한 안전에 대한 요구가 충족됨으로써 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응급처치 대처능력의 상승이 체험만족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응급처치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에서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 대처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시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관련종사자들에게만 안전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관련종사자들의 이용객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무엇보다 실제 이용객들 개개인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자리잡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해양레저스포츠가 국민들에게 여가활동으로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안전교육이 응급처치 대처능력 및 체험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에 규명하기 위하여 K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남녀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0.0과 Amos 16.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및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안전교육이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안전교육은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안전교육이 체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안전교육이 체험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응급처치 대처능력



이 체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응급처치 대처능력은 체험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고객들로 하여금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신경을 쓰며,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체험만족도로 이어짐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 References

- [1] Y. O. Lee, Y.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wareness of Safety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and Job Satisfaction of Marine Sports Workers", *Korean Journal of Security Convergence Management*, Vol.7, no. 1, pp. 62-78, 2017.  
UCI:<http://uci.or.kr/G704-SER000004233.2017.6.1.003>
- [2] M. H. Jung, "A Study on the Experience Choice, Experience Effect and Experience Satisfaction on Marine Leisure Spor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605-613, 2014.  
DOI:<http://dx.doi.org/10.14400/JDC.2014.12.10.605>
-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9/020000000AKR20170329118700062.HTML?input=1195m,2018.03.18>. <http://www.yonhapnews.co.kr/>, 2016.
- [4] S. H. Jang, H. G. Lee. "Trends Analysis on Study Related to Vitalization of Domestic Marine Sports : Focused on Articles Posted in Academic Journal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58, pp. 467-476, 2014.
- [5] J. H. Kim, C. C. Roh, K. T. Kim, "A Study on Blue Ocean Strategy to Reinforce Marine Tourism Industry in Gyeongju", Vol. 29, no. 6, pp. 59-81, 2014.
- [6] S. B. Jung, "A Study on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of Service Quality in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Class and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ervice Valu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2017.
- [7] H. S. Kim, S. H. Hwang, "Safety Management in Ocean Sports", *Korean Journal of Security Convergence Management*, Vol. 4, no. 2, pp. 53-68, 2015.  
DOI: <http://dx.doi.org/10.24826/KOSSCOM.4.2.4>
- [8]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Fire Administration Data and Statistics, 2017.
- [9] T. H. Yoon,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on Leisure sports and Protection measure for Consumer",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Vol. 15, no.1, pp. 101-121. 2012.  
DOI: <http://doi.org/10.19051/kasel.2014.17.4.103>
- [10] A. E. Florio, A. E. "Safety education, Mc Graw Hill", 20-21, 1962,
- [11] Y. N. Jhung, "A Review of a Revised Water Leisure Safety Regul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2, No. 6, pp. 373-385, 2013.  
UCI : <http://uci.or.kr/G704-000541.2013.52.6.031>
- [12] C. S. Jun, "Developing an Intangible Benefit Scale of Sea Leisure Sports Activity and its Activation Plan through IPA",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61, pp. 283-294, 2015.
- [13] I. K. Kwon, S. H. Mu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the Revitalization of Marine Leisure Tourism",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59, pp. 363-376, 2015.
- [14] B. W. Ahn, T. J. Ch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Value and Selection Attribute among Leisure Activity Participant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 37 No. 3, pp. 26-37, 2013.
- [15] I. K. Kwon, "The Analysis of Service Quality Attributes of Water Leisure Tourism and Potential Customer Satisfaction Improvement(PCSI) Index based on Kano Model in Busa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66, pp. 39-54, 2016.
- [16] Y. J. Kim,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afety Consciousness, Safety Culture Formation and Experience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in the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Classroom",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 15 No. 4, pp. 447-456, 2017.
- [17] J. W. Lee, S. H. Bae, "A Study on the Need to Improve Water-Related Safety Education - Focusing on the License Acquisitors of Engine-Powered Leisure Watercrafts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29, No. 5, pp. 1301-1312, 2017.  
DOI:<http://dx.doi.org/10.13000/JFMSE.2017.29.5.1301>
- [18] A. Y. Kim, "A Study on Activation Plans of Disaster and Safety Experience Center for Enhancing National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The Korea Policy Journal*, Vol. 17, pp. 45-54, 2017.
- [19] H. C. Park, "Correlation between SCUBA Divers' Safety Knowledges, Compliance of Safety Rules and Ability for Coping with Accidents and Emergency Situation",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Graduate School of Kong ju National University Gong ju, Korea.
- [20] Y. J. Jung, Y. S. Kwak, "The Post Experience Emotion of Marine Sport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Terms of Intermediation Eff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Vol. 20, no. 2, pp. 21-31, 2018.
- [21] S. H. Seo, K. I. Chung,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training programs for cabin crew and safety behavior - Focused on the mediating role of safety consciousness -",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31, no. 9, pp. 151-167, 2017.  
DOI: <http://dx.doi.org/10.21298/IJTHR.2017.09.31.9.151>
- [22] O. K. Son, S. M. Im. "Effect of safety and science integrated educational program on safety consciou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17, no. 1, pp. 143-166, 2016.  
DOI: <http://dx.doi.org/10.19049.JSPED.2016.17.1.06>
- [23] K. H. Hwang, O. C. Lee, "Factors Affecting Safety Awareness and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among Employees of Public Facilities", *Crisisonomy*, Vol. 13, no. 8, pp. 1-12, 2017.

- [24] O. C. Lee, “ Effects of Safety Education on the Public Saqfety Consciousness Index(PSCI) and Self-efficacy of the Emergency Response in University Students”, Crisonomy, Vol. 10, no. 10, pp. 1-8, 2014.
- [25] H. Kang, H. H. Kim,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Social Security Network on Safety life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 of regional disorder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Vol. 56, pp. 77-99, 2018.
- [26] K. S. Jung, “An Analysis of Satisfaction Factors of Study Based on Educational Service Quality and Adult Student’s Motivation of Learning”,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 14, no. 3, pp. 1-12, 2018.
- [27] M. J. Song, “The Effects of Underwater Apprehension and Self-confidence on the Class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in Elementary School Swimming,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2017.

**최 미 영(Mi-Young Choi)**

[정회원]



- 2013년 2월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 및 응급 보건학(보건과학 석사)
- 2018년 2월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응급의료재활학과(응급구조학 박사)
- 2012년 8월 ~ 2014년 7월 : 분당차병원 응급의료센터 근무
- 2017년 3월 ~ 현재 : 경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안전, 응급구조

**문 태 영(Tae-Young Moon)**

[정회원]



- 1993년 2월 : 국민대학교 체육학과 (운동생리학 체육학석사)
- 2000년 2월 : 명지대학교 체육학과 (이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건학 · 건강증진